

성경 그리고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묵상(103)(12/16/2021)

제 3 권 내적 위로

제 9 장 모든 것을 궁극적인 목적이신 하나님께 의뢰함, 2-3 절

요 4:14 -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 1:16 -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러라.

마 19:17 -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2. 비천한 사람이든지 위대한 사람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부자이든지, 모든 사람이 생명 샘인 내게서 생명수를 길어서 마시는데(요 4:14),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 사람들은 값없이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요 1:16). 하지만 나를 배제하고서 사랑하고자 하거나, 자기 속에 있는 다른 그 어떤 선에서 기쁨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참된 기쁨 가운데 견고히 서지도 못하고, 마음이 넓어지지도 못하며, 도리어 많은 것들에서 장애물들에 부딪치고 곤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 어떤 선이든 네 자신이나 어떤 사람의 공로로 돌리지 말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 하나님이 없이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준 것이기 때문에, 나는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인하여 내게 감사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시 내게로 돌리기를 원하며 동시에 아주 엄중하게 요구한다.

3. 이 진리를 명심하면, 네게서 헛된 영광을 구하거나 헛된 자랑을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참 사랑이 네 마음속으로 들어가면, 시기하거나 미워하는 것도 없어질 것이고, 편협하고 웅졸한 마음도 없어질 것이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도 네 속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영혼의 모든 능력을 확장시켜 줄 것이기 때문이다. 네가 진정으로 지혜롭다면, 오직 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오직 내게만 소망을 둘 것이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고(마 19:17; 눅 18:19), 하나님은 모든 것보다 더 찬송받으셔야 할 분이시고, 모든 것 속에서 영원무궁토록 송축되어야 할 분이시다. 아멘.

말씀과 해설:

은혜의 본질을 아는 주의 백성은 은혜의 근원이 주님임을 믿기 때문에 언제나 주님께 나아간다.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같으시며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가져다 주신다. 하나님은 생명의 물의 근원이 되시므로 이것을 믿고 아는 성도는 시편 42 편의 저자와 같이 언제나 은혜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다. 시 42:1 -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우리는 저자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라고 기도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목마르다고 아무 물이나 마시지 않는다. 은혜의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경거망동하지 않으며 사람이나 이 세상 어떤 것을 함부로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주님께 나아간다.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므로 시냇물을 찾고 또 찾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아는 주의 백성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생수의 근원이신 주님께로 필사적으로 나아간다.

은혜를 아는 성도는 은혜로 인해 받아 누리는데 그 모든 것으로 인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드릴 줄 안다. 그 이유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토록 원했던 성전 건축을 자신이 직접 주관하지는 못했지만, 자기 대신 성전건축을 이룰 솔로몬을 위하여 건축에 필요한 준비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당시 백성들은 다윗의 뜻을 따라 성심 성의껏 헌금하고 헌물하였고 다윗은 그 모습을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다윗은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대하 29:10-19), 그 때 다윗은 백성들이 드린 헌금과 헌물은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했다.

대하 29:13-16 - 13. 우리 하나님이며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5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16.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윗은 자신들이 받은 모든 복과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아울러 자신들이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것은 자신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드릴 수 있음도 감사한 것이다. 다윗은 이 땅에서 나그네와 거류민같은 존재에 불과한 인생들을 위해 수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자신들이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임을 고백했다. 은혜의 사람 다윗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충만했다. 은혜의 사람은 다윗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한다. 이러한 모습은 에베소서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권고 속에도 들어 있다. **엡 5:19-21 - 19.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지금 나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자.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서 있기 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자. 나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오늘을 사는지, 그리고 받은 것을 얼마나 주님께 다시 돌려 드리며, 주님의 마음이 가 있는 사역들, 지역들,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그것을 얼마나 나누는지 깊이 생각해 보자. 감사와 드림과 나눔은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적인 모습이다.

함께 나눌 기도 제목.

1. 오늘도 받은 은혜로 인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며 정성으로 주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눔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3. 켄터키 주를 비롯한 자연재해로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미국 내의 여러 지역들과 수많은 이재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빠른 시간 안에 실종자들을 찾게 하시며, 속히 치유 받고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